

## 국내 용도별 감자 품종 개발과 육종 방향

최장규<sup>2\*</sup>, 진용익<sup>1</sup>, 박영은<sup>1</sup>, 정건호<sup>2</sup>, 이규빈<sup>2</sup>, 권도희<sup>2</sup>, 이재연<sup>2</sup>, 조지홍<sup>1</sup>

<sup>1</sup>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 <sup>2</sup>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 Development and Breeding Direction of Potato Varieties for Diverse Usage in Korea

Jang Gyu Choi<sup>2\*</sup>, Yong Ik Jin<sup>1</sup>, Young Eun Park<sup>1</sup>, Gun Ho Jung<sup>2</sup>, Gyu Bin Lee<sup>2</sup>,  
Do Hee Kwon<sup>2</sup>, Jae Youn Yi<sup>2</sup> and Ji Hong Cho<sup>1</sup>

<sup>1</sup>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Korea

<sup>2</sup>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Korea

감자(*Solanum tuberosum* L.)는 식물학적 분류상으로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로, 재배기간이 짧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세계적으로 벼, 밀, 옥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재배되고 있다. 감자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로 유럽을 거쳐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갔으며, 1824년경 우리나라로 감자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국내 감자 재배작형 비율을 살펴보면, 봄재배가 63%, 여름재배 16%, 가을감자 14%, 그리고 겨울시설재배가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연중 햇감자를 공급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국내에서 감자 교배육종을 시작하면서 육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40여 품종을 육성하였다. 과거에는 부족한 주식을 대체하기 위한 구황작물로 감자를 주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식용감자 품종 위주로 선발하기 위하여 조숙성과 수량성에 중점을 두어 ‘조풍’, ‘추백’ 등의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였다. 최근 국민 소득의 향상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식품 소비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감자를 식용뿐만 아니라 감자칩, 프렌치프라이 등 가공제품이나 더 나아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면서 육종 방향과 목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전분함량이 높고 칩가공성이 우수한 ‘다미’, ‘골든볼’, ‘은선’ 등 칩가공용 품종, 감자모양이 길고 건물함량이 높아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프렌치프라이로 적합한 ‘골든에그’와 ‘얼리프라이’, 기형, 열개 등 생리장해 발생이 적고 일반 부식용인 ‘수선’, ‘추원’ 등 다양한 용도를 가진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육성된 감자 용도별 주요 품종들의 현황과 육종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감자 용도별 신품종 육성(2단계)사업(사업번호: PJ014245202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dndn012@korea.kr, Tel: +82-33-330-1610